

상장기업, 외부자금으로 자산증대

1Q, LG화학·S-Oil 4000여억원 차입 ... SK하이닉스 1조원이상 “최대”

상장기업들의 현금자산이 3개월 사이 7조원 늘었으나 외부자금 조달 등 위기 대응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. 또 SK하이닉스가 지난 1/4분기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.

6월1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중 6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보유액을 집계한 결과, 1/4분기말 현재 보유액은 60조8204억원으로 2011년 말보다 7조 4610억원으로 13.98% 늘어났다.

1개 기업당 평균 보유액은 957억8000만원이다.

현금 및 현금성 자산증가금액 상위 10개 기업

(단위: 억원, %)

순위	기업	증가액	2012년 1/4분기 말	2011년 말	증가율
1	SK하이닉스	14,353	24,157	9,804	146.41
2	삼성중공업	8,905	16,749	7,844	113.51
3	삼성전자	8,172	35,360	27,187	30.06
4	현대중공업	5,003	11,086	6,083	82.24
5	S-Oil	4,265	13,022	8,757	48.71
6	LG화학	4,161	15,214	11,053	37.65
7	POSCO	4,000	15,379	11,379	35.15
8	LG디스플레이	3,267	9,316	6,049	54.00
9	SK텔레콤	2,681	11,637	8,956	29.94
10	삼천리	2,426	3,729	1,303	186.26

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외부 자금조달이나 선수금 및 매입채무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돼 실적호전을 보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자금사정 개선과는 거리가 멀었다.

이는 이들 법인의 부채비율이 지난 1/4분기 말에 97.49%로 2011년 말의 95.78%보다 1.71%포인트 상승한 것이 증명하고 있다.

현금과 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,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. 단 국고보조금액은 제외된다.

상장사별로는 SK하이닉스의 증가금액이 1조40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이어 삼성중공업 8905억원, 삼성전자 8172억원, 현대중공업 5003억원, S-Oil 4265억원 등 순이었다.

현금성 자산 보유 잔액은 지난 1/4분기말 현재 삼성전자가 3조53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SK하이닉스 2조4157억원, 삼성중공업 1조6749억원, 현대자동차 1조639억원이었다.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14>